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3 호 현대불교
2021년 8월 25일(음 7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요

질문 요즘처럼 마음이 팍팍한 세상에서 마음공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이구! 그거 정말 그럴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못난 뿌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거를 100% 다 해 주겠지.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이듯이.'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 부모의 제삿날인데도 차릴 게 없으니까 그저 보리죽을 쑤어서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 한 개비 사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뿌리, 엄마 뿌리, 내 뿌리', 하하하…, '세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한 뿌리니까 한자리를 하소서! 그러면 시장했던 모든 것이 한 떡으로 화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 하고 이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 마름을 주더랍니다, 일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럭하다 보니까 아주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랬는데 그 못 믿은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고, 그렇게 한 거를 아예 못 믿고 그런 사람은 못 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랍니다.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잎새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 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잎새는 그냥 떨어지고 없어지더랍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가지가 돼서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아주 허다합니다. 똑같이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완쾌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쾌가 못 돼요.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제삼자가 대신 밥을 먹어서 남을 진짜로 배가 부르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한마음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가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아니, 그건 뗄래야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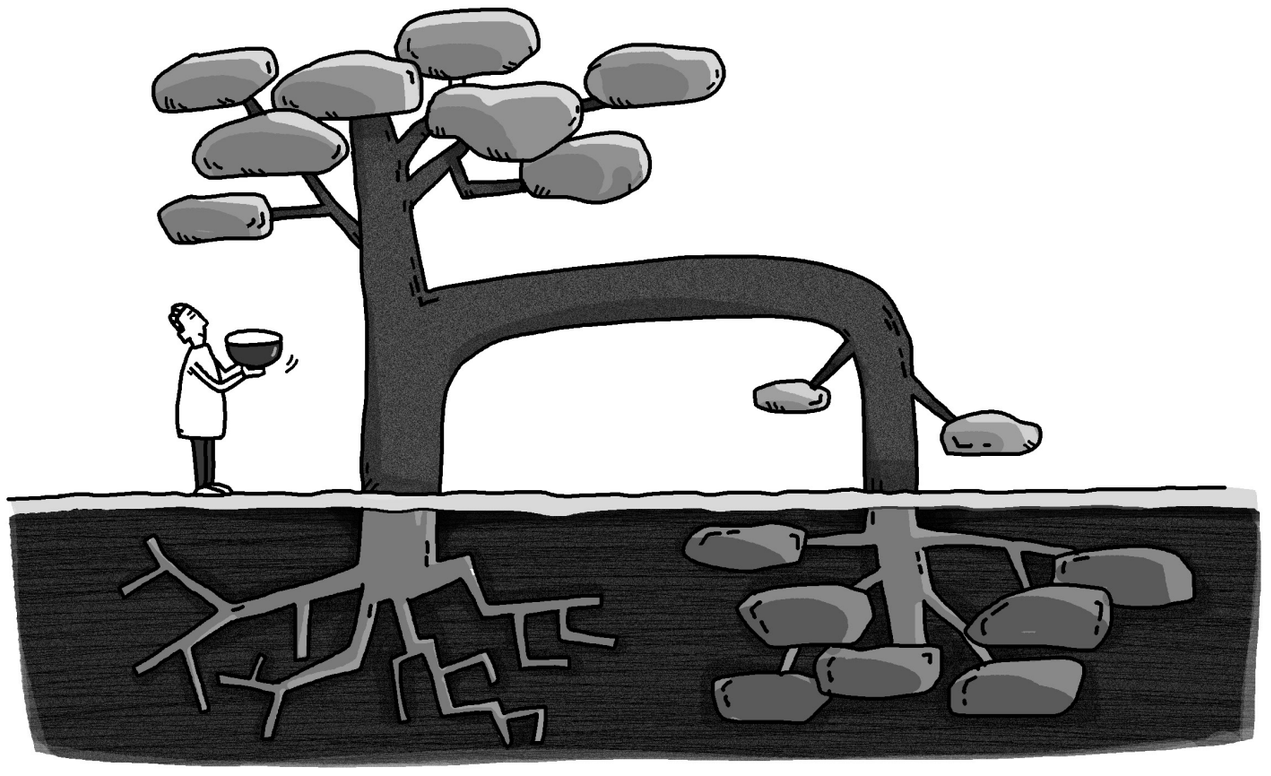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얘기해 드리죠. 거푸 또 할까요? 허허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부착이 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착된 영혼은 바로 영혼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 차원대로, 자기 그릇대로 끼리끼리 만나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동적이거든요, 그게. 즉 말하자면 무쇠는 무쇠 굴에 들어가고 금이면 금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몸을 빌려,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이 된다 이겁니다.

탄생이 되면 그 악업 선업이, 영혼에 부착이 돼서 따라다니던 게 몸속으로 다 그냥…, 그래서 지금 몸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 몸속에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가 한꺼번에 거기 들어 있으면서 차례차례로 그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력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자꾸 누적되지 않게 그 뿌리에다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세요. 부처님이 닥쳐도 '둘이 아니다.' 하고 넣고, 그저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곤 다 그냥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새로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간지옥도 무너진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새 그릇에 담기면서 그릇이 비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새로이 넣는 것이 현실에 나오고, 현실로 나오면 즐거움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니까 안 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매사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다복할 수 있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지 관할지 고민돼요

질문 저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할지 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이런 저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 마디 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맡긴다 안 맡긴다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하누?' 하고 그냥 그럴 테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모두 작용을 해서 고쳐요.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작업장의 기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죠. 그러나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통신이 되지를 않아서 캄캄하니까 병원에도 가야 하고…. 남을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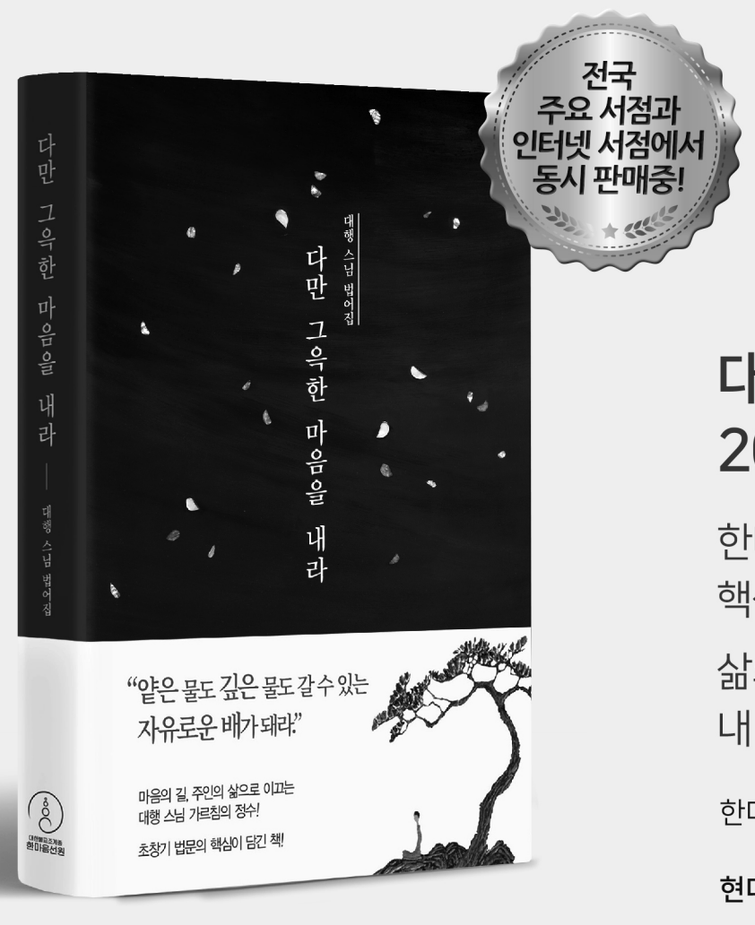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행한다. 그런데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근본 자리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일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럴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둘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만 찾는다고 한다면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 생각을 해 보세요. 형성시킨 것도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을 둬 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 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까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약이 약이 아니고 그냥 영양으로써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을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다 하고는 약이란 소리는 안 하죠, 영. 그런데 그것도 약이에요. 먹어야 사니까요. 물도 약이고 모두가 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약입니까?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 22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